

지역 소식통

김제시, 2025년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연장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농업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와 농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료를 2025년 연말까지 50% 감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동 지역 등을 관할하는 본소를 비롯해 3개소의 임대사업소 본소를 운영 중이며 71종 1,693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 운영 중이다. 관내 모든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대상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전 기종에 적용된다.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소를 방문한 A씨는 “최근 농업현장에서는 농산물 가격하락과 농기계 및 농자재 가격상승 등에 따라 농업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농업인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농업현장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농업정책을 발굴해왔고 농기계임대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농촌이 활력을 찾고 농업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장례식장 다화용기

재사용 지원사업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2025년 3월을 목표로 장례식장 다화용기 재사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례식장 다화용기 재사용 지원사업은 장례식장 내 다화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친환경 장례문화를 조성하고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된다.

본 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해 말 관내 장례식장 4개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장례식장 다화용기 재사용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서 시는 행정적·제도적·예산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 등 사업 총괄을 맡기로 했고, 장례식장은 다화용기 사용 전환을 위한 사전 준비와 빈소 내 다화용기 이용이 지속적으론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금산면 용산리·삼봉리

신세계병원과 업무협약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용산리, 삼봉리 마을회와 신세계병원(병원장 김한주)이 지난 30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세계병원과 금산면 용산리 7개 마을, 삼봉리 2개 마을의 이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을 통해 편익을 도모하고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세계병원은 금산면 용산리와 삼봉리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사회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김한주 신세계병원장은 “금산면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금산면 용산리, 삼봉리 마을회 관계자는 “신세계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지평선축제, 도 대표축제 선정

대한민국 최고 축제 브랜드로 인정 받아... 1억원 인센티브 지원

과감한 공간 구성·프로그램 변화·5無 축제 실천 등 ‘호평’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로 명성을 이어온 김제지평선축제가 '2025 전북특별자치도 대표축제'로 선정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축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로 명성을 이어온 김제지평선축제가 '2025 전북특별자치도 대표축제'로 선정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축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대표축제는 전문가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김제지평선축제는 기획, 운영, 발전역량, 콘텐츠, 조직역량, 방문객 만족도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내년도에 대비 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1999년부터 시작된 김제지평선축제는 지역특산품인 지평선 쌀을 소재로 지역의 자연, 문화, 역사적 특성을 살린 농경문화와 문화유산을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승화시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동 한마당 축제로 변화를 거듭하며 김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된 제26회 김제지평선축제는 기존 공간 구성에서 과감한 변화를 주어 지역 청년들이 참여한 청년 지평선 청년 마당과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지평선 마중거리, 친환경 실천을 위한 에코존을 조성해 김제만의 맛과 멋을 새롭게 선보였고 농경문화 콘텐츠를 새롭게 해석한 벽골제 짚신 퍼레이드와 LED 쥘놀이, 쥘공차기 등 신규 프로그램도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먹거리장터는 '맛보자고 캠페인'을 통해 지역 숨은 맛집을 축제장에 방문한 관광객에게 소개함으로써 지역 관광 자원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했으며, 축제 기간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에 기부함으로써 지역 축제 순기능을 강화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있다. 만족도를 더욱 높였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지평선축제가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2025년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 힘 없는 일상에서 벗어나 축제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지평선축제는 ESG(Environmental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 개념을 축제 운영 전반에 반영해 시민주도, 친환경, 소득창출을 키워드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를 목표로 독보적인 농경문화 핵심 콘텐츠를 선보여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아동·청소년 정책 5관왕 달성

주요 장관상 수상·전국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갱신 획득 등

완주군이 2024년 한 해 동안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 5관왕을 달성하며, 전국 최고의 아동친화도시임을 입증했다.

완주군은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보건복지부 장관상 △청소년 정책분석평가 여성가족부 장관상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어워드 최우수상(3년 연속) △제14회 어린이 안전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전국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 위 인증 갱신까지 이뤄내며 아동과 청소년 정책의 선도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보건복지부 장관상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추진한 아동청소년 복지정책과 맞춤형 돌봄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국 최초 아동음부즈퍼슨사무소 운영과 미래행복센터 등 아동권리 침해 대응사업과 지역 기반 돌봄체계 서비스 확립이 우수사례로 주목받았다.

청소년 정책평가 여성가족부 장관상은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낸 어린이청소년의회, 아동권리모니터링단회 정책 제안 활동과 아동참여예산사업 등을 통한 예산 반영, 아동청소년 정책발표회, 아동청소년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용진을 아동청소년그라운드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22년부터 3년 연속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어워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아동과 청소년이 참여하는 정책 개발과 실질적 권리 보장 노력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전국 최초 아동 감성놀이터를 조성하고 스트레스나 우울증, 자살생각이 높은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감성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00여 개 아동친화도시를 대표하는 아동권리영화제를 완주에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 아동친화도시의 품격을 높였다는 평이다.

완주군은 제14회 어린이 안전대상에서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동청소년 아동안전정책 공모전,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아동청소년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서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호남권 유일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전국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2018년), 상위인증(2020년)에 이어, 또다시 최고단계인 상위인증을 갱신하며 국내 아동친화도시의 모범적 사례로 자리 잡았다. 2024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완주군이 부회장 도시로 만장일치로 추대되기도 했다.

유희태 군수는 “완주군의 아동·청소년 정책이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5관왕이라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완주=열재복 기자

청년이 도전하는 도시... “익산에서 자신감 얻었어요”

고용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성과 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올해 구직단념 청년 107명 대상... 취업·직업훈련 등 지원



익산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평가는 전국 72개 광역·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한 것으로 익산시는 2년 연

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기록을 올렸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만 18~34세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 의욕을 끌어올

리는 사업이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실제 시는 2024년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 27명, 일 경험 11명, 국민취업지원제도 48명, 직업훈련 21명 등 총 107명의 구직단념 청년을 도왔다.

시는 이들의 고용 연계 성과를 거두며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5년도 ‘청년도전 지원사업’ 사업비를 5억 8,800만 원(국비 5억 1,600만 원 포함) 확보해 도전프로그램(단기) 30명, 도전+프로그램(중기) 60명, 도전+프로그램(장기) 30명 등 총 120명의 구직단념 청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리 청년의 성공적인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

익산시의회, 시청에 마련된 분향소 찾아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 의원들은 지난 31일 오후 익산시청 1층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날 조문에는 김경진 의장과 강경숙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함께 해 현화하고 묵념하며 애도했다.

김경진 의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유

명을 달리던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이를 잃고 황망함에 휩싸여 계신 유가족들을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안전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김제시,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정성주 시장 등 300여명 참여 퍼포먼스... 시민 공감대 형성 노력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목표로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김제시(시장 정성주)도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치 기원 붐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먼저 지난 31일 정성주 김제시장, 간부공무원 등 청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대강당에서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하계올림픽

을 유치하고자 하는 김제시의 염원을 결집하고 이를 대내외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체육진흥과장의 행사취지 설명과 참석자 전원의 유치 기원 선언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또 오는 3일부터 3주간은 시장, 의장, 시의원, 간부공무원, 사회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유치 기원 홍보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물, 4개월 만에 4억 2천만원 매출

2024년 성과보고·내년도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지난 8월 정식 문을 연 완주군 통합 유통플랫폼 ‘완주물’이 4개월 동안 4,0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4억 2,000여 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 30일 완주군은 완주경제센터에서 ‘완주물’에 입점한 입점사 관계자들과 2024년 추진성과 및 2025년 추진 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유익식 완주군의회 의장, 이순덕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 완주물 입점사 대표 및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완주군은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회적경제 분야의 제품홍보 및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해 완주물을 개설했으며, 400여 개의 상품이 등록돼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상품을 발굴해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에는 상품 다변화와 물류센터를 통한 더욱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온라인 유통망 구축을 제안하고, 운영을 적극 지원한 이순덕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완주물의 홍보와 조기정착을 위해 협력해 준 박정규 사회적기업 농업회사법인 창창푸드 대표, 전성희 삼례청년물 고안 대표, 김형순 참살이아카데미 영농조합법인 대표에게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완주=열재복 기자

익산시, 장애인 복지 증진 위해 민관 협력

민간기관 지원으로 16억원 투입·21개 사업 진행

익산시가 민관 협력 사업 21개를 진행해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동행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문화영상진흥원 △푸르메복지재단 등 민간기관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16억여원을 지원받았다.

주요 사업으로 △화장실 개보수 △에너지·의료비 지원 △자립생활 지원 △문화예술 지원 △웹툰 아카데미 조성 △디지털융합콘텐츠 지원 △최



중증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해피빈 후원금 모금 등이 운영돼 지역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했다. /익산=이재훈 기자